



Music: みちづれ(길동무)

## 화투장 비(雨) 광(光) 그림

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끝까지  
행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대충 하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투장  
'비(雨)' 광(光) 그림에는  
도복을 입고  
우산을 받혀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인  
오노 도후(小野道風)로  
'미치카제'라고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서예가의 길을 걸던

그가 어느 날,  
마음이 극에 달해 "에라,  
모르겠다.

이젠 더 못하겠다.  
집어치워야지.

내가 글을 잘 써서  
뭐하나?" 하고  
일어나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밖에는  
비가 뿌려됐고,  
비참한 심정으로  
우산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빗물이 불어난  
개울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떴내려 가지  
않기 위해

드리워진  
버드나무를 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에 젖은  
버들가지는

미끄럽고 너무 높아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런 개구리를 보고  
그는 코웃음을 찡깁니다.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니라고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버들가지가 획~ 하고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휘어지자



이때를  
이용하여 버들가지를  
붙잡은 개구리는  
죽을힘을 다해 버드  
나무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오노 도후(小野道風)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한 기회를  
자기 행운으로  
바꾸었거늘,

나는  
저 개구리처럼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제껏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단  
말인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는 의미로

'운(運)도 실력의  
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행운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오노 도후(小野道風)는  
그 길로 다시  
서당으로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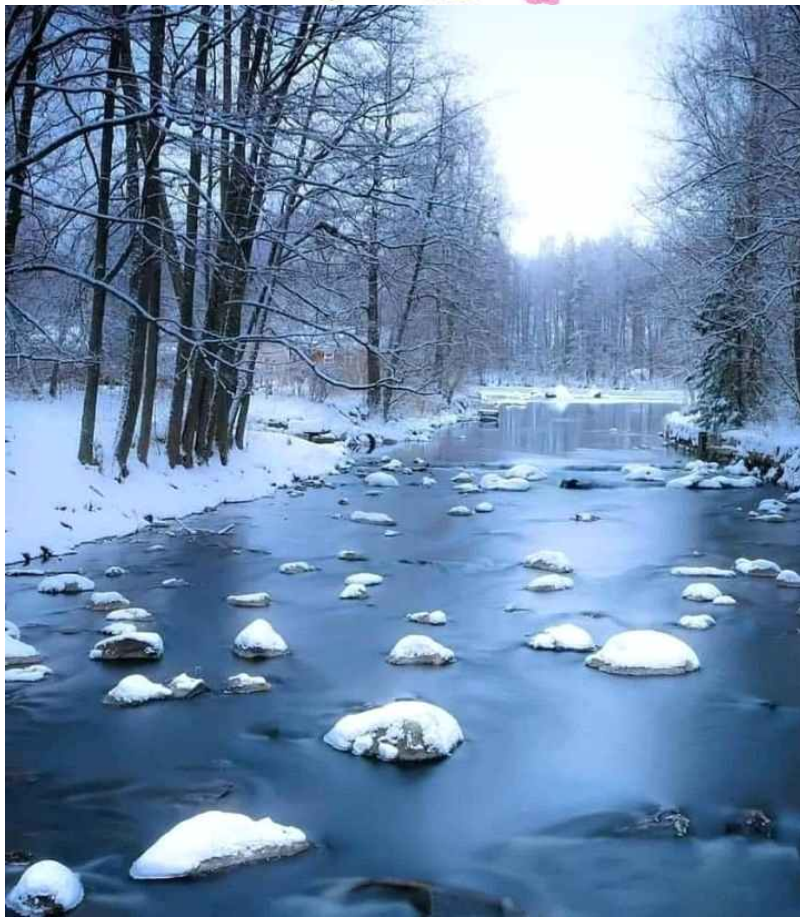
필사적으로 서예 공부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일본 제일의 서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투장에서  
12 월을 나타내는  
'비(雨)' 광(光) 그림에  
오노 도후(小野道風)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까지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다고 합니다.

[출처]  
화투장 '비(雨)' 광(光) 그림  
?카톡에서 받은 글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